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북도, 4050 행복일자리 프로젝트 본격 시동 4050세대 특성(가정+부모+노후)을 반영한 안정적인 특별지원 정책 마련	일자리경제 노동과	
② 경북도, 올해 하천사업에 4천295억원 투입! 하천재해예방 등 212개소 2천139억원, 유지보수사업 등 358개소 197억원 태풍 '돔데기' 막아 재해복구 29개소 1천450억 홍수방어력 증대 자연화공간안정구조	하천과	사진 별 첨
③ 2020년에도 경북 지적재조사사업은 순항 한다! 지적재조사 사업비 국비 32억원 확보, 지난해 대비 3배	토지정보과	
④ 행복한 귀농! 체계적인 창업설계로 디자인 하자 창업컨설팅 연계 귀농창업모델개발과정 교육생 모집 개인별 귀농창업설계 지원	농업기술원	사진 별 첨
⑤ 경북도, ' 20년도 새마을사업 본격 추진! 농어촌낙후마을 도시쪽향촌·달동네등주거취약지역환경개선을위한공모준비박차	도시재생과	

 경상북도	보 도 자 료 【20. 1. 28(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노동과			
		작 성 자	과 장	박 성 근		
			팀 장	백운기	주무관	유명상
		연 락 처	054-880-2648			

경북도, 4050 행복일자리 프로젝트 본격 시동

- 4050세대 특성(가정+부모+노후)을 반영한 안정적인 특별지원 정책 마련 -

경북도는 고용시장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4050세대의 조기퇴직과 실직으로 저임금 기피, 생계비 부족·경력 단절 우려 등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맞춤형 종합일자리 경북 4050 행복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4050 행복일자리 : 퇴직한 40~50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

- 4050 취업자 수 : '18.10월(675천명)→'19.10월(665천명)

경북 4050 행복일자리는 도내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 추세이나, 4050세대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청년, 노인, 여성에 비해 지원이 소홀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4050세대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특별지원 정책이다.

4050 행복일자리는 일자리 전담기능 강화와 재취업·창업을 위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기존 일자리를 지킨 기업에게 워라벨의 장려금 지원, 신규고용 우수기업에게 근로환경개선금 지원으로 4050세대의 재취업을 유도하며, 이·전직에 대한 적합한 직무지원을 위해 체계적 훈련과 직무활용·전환을 위한 맞춤형 창업을 지원한다.

경북 4050 행복일자리는 5개 사업으로 600명 일자리 창출, 75개 우수기업 지원, 20개사 창업을 목표로 추진해 4050세대의 가정과 도내 기업에 큰 도움이 예상된다.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경북 4050 행복일자리 센터 운영으로 사업홍보 및 훈련 참여자 모집 상담을 통한 취업 3로드

(구직-교육훈련-창업)추진 ▲경북 4050 행복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지킴이 행복 나눔과 신규고용 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 ▲경북 4050 행복일자리 아카데미로 실직·조기퇴직자 재취업 교육과 이·전직자 맞춤 프로그램 운영 ▲경북 4050 행복일자리 박람회로 매월 4, 5일 매칭데이 지정 운영 및 권역별·산업별 개최 ▲경북 4050 행복창업 엑셀러레이팅으로 창업에 필요한 노하우 전수와 전문가 그룹 컨설팅 지원으로 성공적인 창업지원 등이다.

이처럼 경북도가 4050 행복일 자리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4050세대는 우리 경제·사회의 중추이며, 실직 시 가족 부양의무 소홀로 가정붕괴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 사회 전반에 큰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실질적으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4~50대 구직자와 노총, 상공회의소, 경영자 총협회 등 일자리 유관기관과 현장 간담회 개최 등으로 맞춤형 일 자리를 지원한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12월 26일 「40대 일자리 TF」를 구성하여 직업 훈련·교육 및 생계비 지원,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산업·지역 등 5개반을 운영하며, 40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및 기업의 40대 고용 인센티브 확대, 50대~60대를 위해 신중년 맞춤형 일 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금년도 예산 15억 원을 4050 행복일 자리에 투입함으로써 구직자-중소기업간 미스매치가 해소되어 4050세대가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삶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 28(화)】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하천과			
		과 장	최 정 우			
		작 성 자	팀 장	박준로	주무관	장계준
		연 락 처	054-880-4068			

경북도, 올해 하천사업에 4천295억원 투입!

- 하천재해예방 등 212개소 2천139억원, 유지보수사업 등 358개소 197억원 -
- 태풍 ‘콩레이, 미탁’ 재해복구 29개소 1천959억, 홍수방어능력증대, 자연친화공간 인프라 구축 -

경상북도는 금년도 지방하천사업으로 23개 시·군 599개소에 4천295억원 (국비 1,659, 도비 2,332, 시군비 304)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역 일자리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천정비사업을 금년 3월까지 조기발주하고 상반기 중에 올해 예산의 60%를 집행할 계획이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하천재해예방사업 66개소(48km) 1,905억원을 비롯하여 하천기본계획수립(68개소 475km) 및 하천대장작성(77개소 719km) 용역비 116억원, 봉화댐건설 118억원, 하천유지보수사업 358개소 134억원, 지하수관리시스템구축 등 63억원, 태풍콩레이 재해복구 6개소에 70억원을 투입하고, 태풍 ‘미탁’ 피해지구 23개소(49km) 1,889억원을 들여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 으로 인해 하천제방유실, 구조물 파손 등 개선복구가 시급한 23개소(경주,영덕,성주,울진)는 태풍 피해복구 T/F팀을 1월부터 구성·운영하여 재해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 추진한다.

하천재해예방사업은 2009년~2025년(26년)까지 총268지구 1,680km에 4조 6,865억원을 투자하여 홍수방어능력을 증대시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배용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올해 하천재해예방사업과 지난해 태풍 피해복구사업 등 총 4,295억원의 하천사업 예산을 조기집행하여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 28(화)】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토지정보과			
		작성 자	과 장	김 기 섭		
			팀 장	차은미	주무관	이연대
		연 락 처	054-880-4055			

2020년에도 경북 지적재조사사업은 순항 한다!

- 지적재조사 사업비 국비 32억원 확보, 지난해 대비 3배 -

경상북도는 2020년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지난해 대비 3배가량 증가한 국비 3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폭 늘어난 예산으로 금년에 도내 60개지구(1만7천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경북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92개 지구 4만1천필지(면적:30km²)의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을 새로이 확정하여 도민들의 토지분쟁해결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

지적불부합지는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후 한국 전쟁, 급속한 토지개발, 종이도면의 신축 등으로 도면이 훼손돼 현실경계와 도면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필지를 뜻하며, 이로 인하여 이웃 주민 간 경계분쟁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와 같은 지적불합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최신 측량 기술을 적용해 새롭게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을 조사 측량해 확정하는 사업으로, 경계 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기섭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의 문제를 해결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올해에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 도 자 료 【20. 1. 28(화)】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기획교육과			
		작 성 자	과 장	이 상 택		
			팀 장	전광표	주무관	김영아
		연 락 처	053-320-0395			

행복한 귀농! 체계적인 창업설계로 디자인 하자

- 창업컨설팅 연계 귀농창업모델개발과정 교육생 모집, 개인별 귀농창업설계 지원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농산업 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창업모델개발과정」 교육생을 2월 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교육은 귀농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농산업분야 창업에 대한 확대 등 변화하는 귀농교육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마련됐으며,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매주 1박 2일씩 4주에 걸쳐 실시한다.

귀농창업모델개발과정은 귀농인의 성공적인 창업 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연계하는 귀농창업설계지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농업 창업 계획 수립에 필요한 농업환경변화, 트렌드, 시장조사, 아이템 개발 전략 등 창업기초와 창업비즈니스모델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창업실무 교육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 교육은 실습형 참여식 교육으로 창의적 창업아이템 발굴과 개인별 창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사업계획서 작성을 통하여 사업목표를 정립하고 창업계획 구체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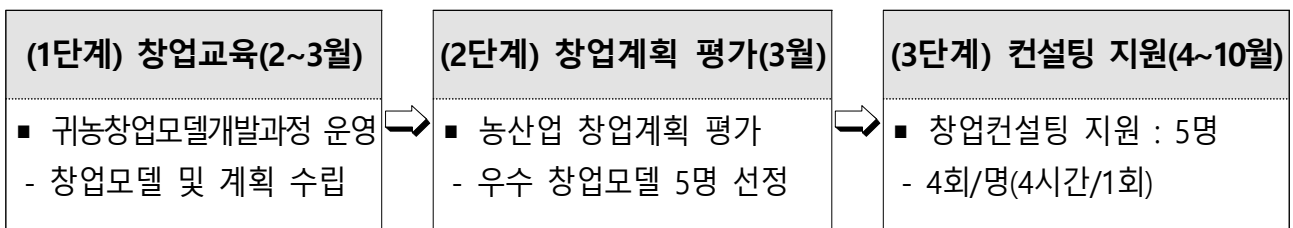
또한, 우수 창업모델을 선발하여 성공적인 창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창업초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기연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체계적인 창업설계 교육과 컨설팅이 창업을 준비하는 귀농인에게 실패를 줄이고 성공적인 창업을 실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며 “농산업 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 귀농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 고 말했다.

귀농창업모델개발과정 교육계획

- ❖ 귀농창업 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등 창업설계 지원
- ❖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창업역량 강화 및 농업기반형 일자리 창출

□ 추진체계



□ 교육개요


- 기 간 : 2. 13. ~ 3. 13. (매주 목, 금) * 8일(1박 2일 × 4주), 56시간
- 대 상 : 귀농인 * 2015. 1. 1. 이후 귀농하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경북거주 귀농인
- 교육인원 : 40명
- 교육장소 : 농업기술원 농업교육관 2층 강의실
- 수료기준 : 출석 75% 이상
- 교육내용
 - (창업기초) 농업환경변화, 시장조사, 아이템 개발전략, 고객관리 등
 - (창업실무) 창업모델 이해 및 실습, 사업계획서 작성 이해 등
- 우수 창업모델 선정 : 5명 → 창업컨설팅 지원

□ 모집개요

- 접수기간 : 1. 28.(목) ~ 2. 6.(목)/10일간 * 홍보기간 : 1. 20. ~ 2. 6.
- 접수방법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선정기준 : 교육대상에 해당되는 신청인 선착순 선발
- 선정통보 : 2. 10.(월)/ 개별 문자 통보 *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귀농창업모델개발과정 교육일정표

회차	일 자	내 용	주 제
1	2. 13.(목)	● 개강식	【농장주】 나 그리고 우리, 철학과 가치관으로 산다 '업의 재정의, 나와 우리의 재발견'
		● 농업농촌의 변화와 농업창업경영	
		● 유형별 커뮤니케이션 스킬 및 분석	
		● 2020 트렌드 분석	
2	2. 14.(금)	● 핵심가치 도출 및 밸류체인의 이해	
		● 나의 신조행동지침 도출하기	
		● 스토리텔링의 이해 및 실습	
3	2. 20.(목)	● 농장의 컨셉과 농산물의 컨셉	【농 장】 농장은 사람을 반영한다 '내가 꿈꾸는 나의 농장'
		● 중장기 전략계획서 설계	
		● 내가 꿈꾸는 농장디자인 설계	
4	2. 21.(금)	● 마케팅과 브랜드네이밍 전략	
		● 시장조사와 고객조사	
5	2. 27.(목)	● 상품 및 서비스개발, 고객가치 이해	【농산물】 농산물은 상품이자 가치이다 '가치를 통한 비즈니스모델 전략'
		● 비즈니스모델캔버스 이해	
6	2. 28.(금)	● 비즈니스모델캔버스 작성 실습	
		● 프라이싱 전략 농산물 가격결정법	
7	3. 12.(목)	● 유통채널별 유통방안 및 유통전략	【농업경영】 생각하면 현실이 된다 '목표설정과 창업플랜'
		● 농업창업 소득증대모델 이해	
		● 귀농창업계획 코칭	
8	3. 13.(금)	● 농업창업 사업계획 작성 노하우	
		● 자화상 팜아트 및 포트폴리오 작성	
		● 창업모델 선발 및 수료식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 28(화)】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도시재생과			
		작성 자	과 장	장 성 활		
			팀 장	장연자	담당자	임우홍
		연 락 처	054-880-3944			

경북도, ' 20년도 새뜰마을사업 본격 추진!

- 농어촌·낙후마을 도시 쪽방촌·달동네 등 주거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공모 준비 박차 -

경북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도내 14개 시군(경주 등), 23개소의 사업예정지를 발굴하여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농어촌 및 도시의 낙후마을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주민 밀착형 사업으로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고, 중앙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향식 공모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본 신규사업에 작년 대비 130% 증액된 국비 420억원을 확보하여, 전국 농어촌·도시 120여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북도 내 새뜰마을사업은 2019년까지 농어촌 34개소, 도시 7개소가 선정, 총사업비 911억원을 확보했으며 2019년도 선정사업은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동 사업에 선정된 마을은 농어촌 낙후마을, 도시 쪽방촌·달동네 등 그동안 경제성장 혜택에서 소외되어 도심과 생활격차가 큰 마을로, 상하수도시설 미비, 30년 이상 노후가옥, 슬레이트 지붕, 재래식화장실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곳이 대다수이다.

이 사업을 통해 주거여건 개선, 생활인프라 확충 뿐 아니라, 문화·복지·일자리 사업 등 각종 휴먼케어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게 된다.

경북도와 시군에서는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만족도가 높은 새뜰마을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신청예정지 대부분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와 시군은 사업대상지 발굴부터 평가단계까지 협업을 통해 공모 예정지구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새 뜰 마을 사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농림부, 국토부와 함께 2015년부터 농어촌과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 안전확보 ▶ 생활·위생 인프라 ▶ 일자리·문화 ▶ 집수리 지원 ▶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 주도형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진행

- ◆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농어촌 낙후 마을, 도시 달동네(쪽방촌) 등 열악한 주거환경 지역을 새롭게 변모시켜 주민생활 편의 도모

사업개요

- 주 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 사업기간 : 농어촌 3년, 도시 4년
- 사업비 : 개소당 국비 50억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 ※ 생활인프라 및 안전 관련 사업은 추가적인 보조금 우대(국비 80%)
- 지원대상 : 주거취약지역, 상하수도 미설치지역, 안전취약지역
- 사업내용 : 취약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휴먼케어 등

선정현황

선정년도	대상	건수	총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41	91,147	67,028	7,233	16,886	
'15년	시·군	9	27,371	20,323	2,114	4,934	도시 1 농어촌 8
'16년	시·군	9	18,374	13,505	1,461	3,408	도시 2 농어촌 7
'17년	시·군	7	11,768	8,630	942	2,196	도시 1 농어촌 6
'19년	시·군	16	33,634	24570	2,716	6,348	도시 3 농어촌 13

'20년 향후 일정

- '20년 새뜰마을사업 공모 신청 : '20. 1월 말 (도→균형위)
- '20년 새뜰마을사업 대면 및 현장 평가 : '20. 2월
- '20년 새뜰마을사업 공모 선정 : '20. 3월